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전략기획 담당 지사장으로부터의 신년 인사



아메리칸 항공, 아시아와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다



저는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 인사를 아메리칸 항공의 고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메리칸항공은 400년 역사의 탕현조의 작품인 '모란정'이라는 중국 고전 연극의 공식후원 소식으로 새해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란정'은 현대 무용으로 재해석되어 세계 최초로 중국 외의 나라에서, 그리고 최고의 무용극장 중 하나인 링컨 센터럴 플라자의 데이비드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무용공연의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메리칸항공은 항공사의 역할 중 하나가 세계인들의 가교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여행처럼 예술은 우리 마음의 청량제 역할을 해주고, 시야를 넓혀주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예술과 문화 교류를 후원하는 것은 각 나라와 사람들의 서로 간의 이해와 우정을 쌓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중국 진링 무용단에 의해 공연되는 '모란정'은 미국의 새로운 관객들에게 중국 무용의 예술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뉴욕에 가실 예정이라면, 아메리칸항공이 제공하는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논스탑 데일리 서비스와, 올 봄부터 시작되는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하여 뉴욕 JFK 공항을 잇는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를 스타하여 뉴욕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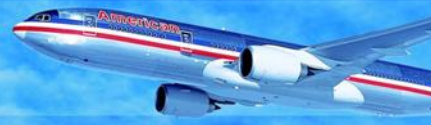
일본에서 아메리칸항공은 빌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일한 음악 무대인 빌보드 라이브와 파트너십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경과 오사카의 두 클럽은 관객들을 위해 세계 유명 공연가들과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합니다. 빌보드 라이브에서 만난 첫 번째 공연은 일본 팝 가수인 '아이'의 무대였으며, 아메리칸 항공은 현재 그녀의 공식 후원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최근 요요기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두 번의 매진 기록을 세운 마이클 잭슨 헌정 공연 무대에 전설적인 잭슨 패밀리와 함께 섰습니다.

중국에서 아메리칸 항공은 두 개의 문화 예술 행사에 후원사가 되었습니다. Meet in Beijing 아트 페스티벌은 아시아 최대의 페스티벌이며 5월 문화 교류의 달에 전세계로부터 온 예술가들을 만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유희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에서 아메리칸 항공은 상하이 재즈 페스티벌의 공식 항공사가 되었으며, 재즈 페스티벌은 10월에 2주간 그 행사를 열게 됩니다.

2012년은 일본 동경과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 간의 스케줄로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첫 서비스를 개통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아메리칸 항공의 80년 역사에 중요한 해입니다. 25년 동안 아메리칸 항공은 아시아와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메리칸항공의 비즈니스를 지원해온 고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아메리칸항공의 전임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신년 인사를 보내며 머지 않은 시일에 우리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슬리 스타스틸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전략기획 담당 지사장
아메리칸항공



What's Going On In Japan

아메리칸항공, 일본에서 열린 마이클 잭슨 헌정 공연 후원



아메리칸항공은 12월 동경의 요요기 스테디움에서 열린 마이클 잭슨 헌정 공연의 후원사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헌정 공연은 그의 발자취와 생애를 기념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그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을 결속시켜 주는 무대였습니다.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약

20,000 명의 관객이 화려한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세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댄스 무대”로 총 90여 명의 댄서들이 마이클 잭슨의 히트 노래에 맞춰 안무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 무대”로 유명 가수들에 의해 피처링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잭슨 무대”로 일본 가수인 아이의 음색으로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을 원래 방식으로 부르며 38년만에 마이클 잭슨을 일본으로 데려온 듯하여 관중들을 흥분시킨 공연이었습니다. 모든 공연의 마지막은 '마이클 잭슨'스러운 공연으로 세심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현재 자넷 잭슨과 월드 투어를 함께하는 음악

감독을 데려왔으며, 두 명의 원조 밴드 멤버와 “THIS IS IT”의 안무가가 함께 참여한 고무적인 공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메리칸항공은 음악과 공연을 통해 다문화 교류를 후원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리타 도큐 호텔의 나리타-달라스 서비스 25주년 기념 인사



우선 나리타-달라스/포트워스 서비스의 25주년을 축하합니다!

1987년 5월 21일 이래 우리 호텔은 아메리칸항공 승무원들을 위한 지정 호텔이 되어 꾸준히 서비스 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85년 7월 1일 호텔이 개업한 이래, 저는 우리 호텔의 역사가 나리타에서의 아메리칸항공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텔 운영을 시작했던 때 400개의 방을 보유한 규모에서 1993년 승무원들을 위한 단독 건물(남쪽 건물)을 짓고 방을 305개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방들의 사양과 달리, 우리는 승무원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넓은 공간과 큰 침대, 천장과 화장실을 높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을 위해 “더 편안하고 집과 같은 호텔”이라는 목표를 두고 “씨에스타 하우스”라고 불리는 레스토랑을 열었으며, 실

내 수영장과 헬스 시설도 구비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호텔은 방까지 연결되는 복도와 벽지를 새단장 하였으며, “씨에스타 하우스”를 보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헬스장 안에 TV 모니터를 설치했으며, 각 방에 베개를 추가하고 와이-파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호텔 시설과 사양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항상 아메리칸항공 승무원들이 우리 호텔 로비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제 사무실에서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때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호텔 임직원 모두는 아메리칸항공 승무원들의 따뜻하고 밝은 미소와 대화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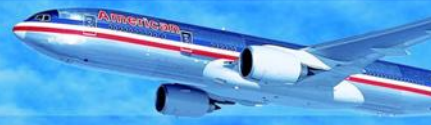
우리는 아메리칸항공 승무원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주기 위해 우리 호텔에 머물 때 최선의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방법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호텔 전체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3.11 일본 지진 때 도움을 주신 아메리칸항공 승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당시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고, 많은 양의 배터리와 손전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아메리칸항공과 우리 호텔의 관계가 지난 25년처럼 함께 발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2012년 1월 6일
히데키 이치하라
매니저/나리타 엑셀 호텔 도큐



나리타 엑셀 호텔 도큐의 새해 선물!
1월 15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1층의 “가드니아”레스토랑에서 주문 시, 아메리칸항공의 Insight 1월호를 보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한 잔의 와인이나 음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What's Going On In China

아메리칸항공, 2011 년 탑 트래블 세레모니에서 '최고 기내식 항공사'에 뽑히다



아메리칸항공은 항공 기내식의 수준과 동서간의 문화 교류를 높이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항공은 탑 트래블 매거진에 의해 매년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2011 년 '최고 기내식 항공사'를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아메리칸항공이 기내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비행기 여행의 차별화를 만들어 낸 점을 인정하

였습니다. 아메리칸항공의 이사인 빅터 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올해의 '최고 기내식 항공사'에 뽑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 년 전부터 유명 셰프들을 고용하여 특별한 메뉴들을 소개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내식 메뉴와 식사 경험을 시도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메리칸항공은 셰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품격의 기내식으로 고객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계속 식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기내식은 동과 서의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아메리칸항공은 고객들로 하여금 특별한 미각의 다양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 교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탑트래블은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최고 여행잡지입니다. 잡지의 대상은 부유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부유한 중국 여행객들입니다. 시상 결과에 대한 투표는 tencent.com, ifeng.com, huanqiu.com, 그리고 sg.com 에서 한 달 동안 이루어 졌으며, 시상식 행사는 2011 년 12 월 6 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What's Going On In Hong Kong

케세이 퍼시픽, 아메리칸항공의 브라질 노선에 코드쉐어



2011 년 11 월 24 일 케세이 퍼시픽 항공은 브라질의 도시인 상파울로와 리오데자네이로로 향하는 원월드 파트너인 아메리칸항공과 코드쉐어 계약을 맺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멕시코, 칠레 그리고 페루로의 코드쉐어편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에 홍콩 항공기의 존재를 더욱 확고히 해주게 되었습니다. 두 노선의 새로운 서비스는 케세이 퍼시픽 항공 고객들에게 뉴욕 JFK 를 통한 브라질 여행 시 더 다양한 선택권과 연결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케세이 퍼시픽 항공은 뉴욕과 상파울로, 그리고 뉴욕과 리오데자네이로 사이의 아메리칸항공 운항편에 "CX"코드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상파울로와 리오데자네이로의 추가로 케세이 퍼시픽 항공은 아메리칸항공과의 코드쉐어를 통해 미대륙의 25 개 목적지로의

연결편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JFK)-상파울로(GRU) - 2011 년 12 월 5 일부터

편명	경로	출발/도착시간	주간편수
CX*7698/AA951	JFK/GRU	2150/1025+1	매일
CX*7699/AA950	GRU/JFK	2305/0600+1	매일

뉴욕(JFK)-리오데자네이로(GIG) - 2011 년 12 월 5 일부터

편명	경로	출발/도착시간	주간편수
CX*7712/AA973	JFK/GIG	2130/1015+1	매일
CX*7713/AA974	GIG/JFK	2325/0625+1	매일

아메리칸항공, 홍콩과 뉴질랜드 포털 사이트 개설



2011 년 12 월 12 일, 아메리칸항공은 홍콩과 뉴질랜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이트는 고객들에게 비행기 티켓의 구매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체크인, 비행 상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AA 사이트의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 하기 위해, 사이트는 AA 어드밴티지, 수화물 정보, 미국 입국 필요서류, 비행기 탑승 등의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아메리칸항공은 사이트를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기에 희망합니다.

